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다연장학 및 총동문회장 상반기 장학금 전달 소식 안내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을 졸업한 동문들의 장학금 전달식이 지난 6월22일(월) 오후 5시30분 문화예술대학원 원장실에서 있었다. 이날 전달식에는 최정선 동문과 제9대 이유원 총동문회장 그리고 오병욱 문화예술대학원장과 장학금 수혜자 등 참가 하였다.

최정선 동문(문예창작학과 2014년 졸업)은 문화예술대학원 문예창작학과 학생들을 위해 2014년부터 현재까지 8천만원이 넘는 장학금을 기부하고 장학생을 선발·지원하는 등 졸업 후에도 지속적으로 후배사랑으로 열정과 재능이 있는 후배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있다.



<최정선 동문과 다연장학 수혜자 김효선 원우><좌측부터 최정선 동문, 김효선 원우, 오병욱 원장>



<장학금 전달식 후 전체 간담회(좌측부터 시계방향으로 이유원 회장, 김효선 원우, 최정선 동문, 오병욱 원장, 서미경 원우, 정호영 원우, 최선영 원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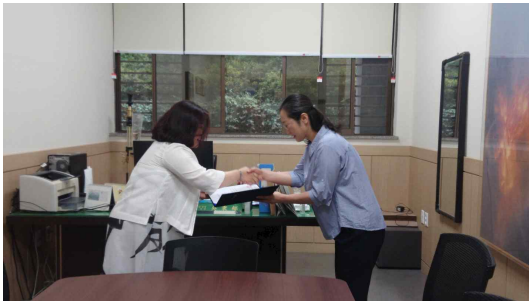
이유원(조형예술경영 전공 2015년 졸업) 제9대 문화예술대학원 총동문회장은 재학시절 37기 총학생회장을 역임하였고, 2014년 후학들을 위해 1천만원의 장학금을 기부하기도 하였다. 이번 문화예술대학원 총동문회 장학은 지난 해 문화예술대학원 제9대 총동문회 출범 후 처음으로 총동문회에서 학과 교수의 추천을 받아 3명의 후배들을 선정하여 학업의 정진을 기원하며 주는 장학이다. 총동문회장은 “이후에도 꾸준히 후배들에게 장학금을 통한 후배사랑과 인재 양성에 힘을 기울이겠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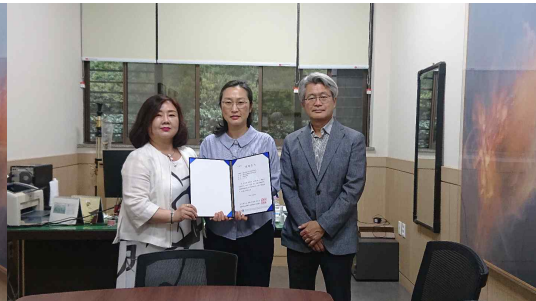
<이유원 회장과 총동문회장학 수혜자
정호영 원우>



<좌측부터 이유원 회장, 정호영 원우,
오병욱 원장>



<이유원 회장과 총동문회장학 수혜자
서미경 원우>



<좌측부터 이유원 회장, 서미경 원우,
오병욱 원장>



<이유원 회장과 총동문회장학 수혜자
최선영 원우>



<좌측부터 이유원 회장, 최선영 원우,
오병욱 원장>